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72)(10/2/2021)

제 2 권 내면의 삶에 관한 권면들

제 9 장 어떠한 위로도 없이 지냄, 7-8 절

계 2:7 -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벧전 5:8 -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약 5:13 -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롬 12:12 -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시 120:1 -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7. 은혜가 떠나가서 열심이 식은 일을 종종 경험하지 않은 신앙인을 나는 한 번도 만나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성도가 큰 빛을 받아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갔다면(고후 12:2), 틀림없이 그는 그 이전에 시험을 받았거나, 그 이후에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환난을 통해 연단을 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환난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머지 않아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임을 보여 주는 전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하늘의 위로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계 2:7).

8.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지는 것은 그 사람이 더욱 강해져서 역경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후에 시험이 주어지는 것은, 자기가 해낸 일들로 인하여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귀는 잠을 자지 않고, 육신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싸울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고, 전투태세를 해제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좌우에 있는 대적들은 결코 쉬지 않기 때문입니다(벧전 5:8).

말씀과 해설: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삶의 현실들을 담아 내고 있다. 그 중에 하나는 인생길에는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 평탄한 길과 오르막길이 공존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푸른 풀밭과 실 만한 물가로도 가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삶에서 환난과 풍파를 만날 때 비록 힘들고 당황스럽지만 담담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원래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마 6:13)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다.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시험에 들고 악한 것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런 때에는 더더욱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기도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해야 한다. 예수님은 주기도를 통해서도 인간의 현실을 알려 주신 것 같다.

베드로 사도도 우리가 불 시험을 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했다. **벧전 4:12 -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가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들은 우리의 삶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시험과 환난은 우리를 연단시키는 유익이 있다. 고난은 고통스럽다.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를 연단하여 새롭게 한다. 고난을 통하여 연단된 성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과 영성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된다. 그 모습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단계로 올라간 것을 말하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영적 상태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이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단숨에 수준 높은 경지에 오른 것이 아니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오랜 시간 동안 훈련을 받았다. 그가 이삭을 드림으로 믿음을 인정 받기까지 좌충우돌하였고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하나님은 모세라는

결출한 지도자를 애굽에서 40년,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혹독하게 훈련시키셨고, 나이 80세 때 불러 주신 이후에도 또다시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며 리더로서 자리매김하게 하셨다.

이들의 삶의 여정에는 희로애락이 공존한다. 성공도 있었지만 실패도 있었고, 기쁨과 보람도 있었지만 온갖 종류의 좌절과 탄식과 절망감에 빠져들 때도 많았다. 그들은 엄청난 불 시험을 당하면서 깨어지고, 다듬어지고, 거듭났다. 이들은 시험과 환난을 통하여 영적인 내공을 기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내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된 것이다. 결국 그들에게 임한 시험이 그들로 하여금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한 것이다. 그렇다. 은혜가 은혜를 받게 하고 은혜가 은혜로 이끌어 간다. 그와 함께 시험도 은혜의 관문이 되는 것이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은 시험 끝에 만날 은혜를 예비해 주신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영적 세계를 경험하는 사람들 중에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나름대로의 내적 고뇌와 시험과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많다. 엘리야와 같은 구약의 선지자들, 바울과 베드로 같은 신약의 사도들의 영적인 수준과 위상은 그냥 형성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다양한 불 시험을 당할 때에는 시험을 무사히 성공적으로 건디어 내고 통과하기 위해 더욱 영적으로 각성하며 기도해야 한다. 왜냐하면 불 시험에 잘못 대응하면 더 큰 시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약 5:13 -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롬 12:12 -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하나님은 환난 중에 기도하는 성도를 반드시 도우신다. 시 46:1 -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 120:1 -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아울러 시험 중에 있을 때에는 그 시험을 통한 영적 유익을 생각하며 견뎌야 한다. 그 영적 유익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이다. 롬 5:3-4 - 3.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4.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훈련을 허락하신 이유를 알려 주셨다. 신 8:2-3 - 2.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 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 하나님은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성숙이었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였으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시험을 당할 때 믿음으로 극복하고 통과하는 사람은 주께서 예비하신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다.

고난과 시험 가운데 있는가? 믿음 가운데 기도함으로 이겨내라. 주님의 목적을 생각하고, 영적인 유익을 생각하라. 그리고 고난 중에 그리고 고난 끝에 예비된 주님의 은혜, 위로, 영광, 상급을 생각하라.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우리 인생에서 때때로 당하는 불 시험을 넉넉히 감당하여 승리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유익과 큰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2. 우리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지들과 기관들을 오늘도 강력한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3. 하나님께서 48년 전에 세워주신 뉴헤이븐한인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더욱 충만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드리고 주님께 큰 영광이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목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